

예 배 WORSHIP

November 10,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하나님 앞으로 |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로마서 1:8-15 복음에 빛진 자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세상 모든 민족이 |
| 헌신과 나눔 | 봉 헌 / 최내권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 살과 세상으로 | * 찬송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구 민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5:1-7
이스라엘의 절기 - 안식년

오늘의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바울과 베드로는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시려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롬12장1절 / 벰전2장5절) 즉,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만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만 영광받도록 오늘도 애쓰자.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먼저 교회 세움을 받기위해서 우리 각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부인의 길을 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속의 옛 사람을 '내려놓음'이 전제되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 들이는 '비움'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나아가자.

한 주간의 기도

"해 봤자 안 될 거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전도에 비관적이고, 성령충만을 남의 일로 간주하고, 내 이기심 때문에 사랑과 관용은 나중으로 돌리는 냉소적 생각, 패배주의 관념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지요, 마귀로부터 오는 이런 생각을 다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온 것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아래층 11:30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의 마음이 쉬어갈 것이니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섬겼더니...(2)

요세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님은 어찌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수 17:14,15)

2. 분열이 아닌 즐거운 부르심

내 마음에 맞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해 나의 이익에 맞는 사람들과 조직을 이루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분열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전쟁에서 승리해 참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에 더 마음이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노골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 필요는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루겠다는 믿음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다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분파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교회 사역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때에만 누릴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나의 일이 되면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만다. 목회자로서 나 역시 조심스럽게 나의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부르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무슨 일만 맡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 모두가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잘 견디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이 요구되는 가정이나 책임과 결과를 요구받는 직장에서 우리는 때로 시달리며 힘들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거나 책임이 없는 곳을 찾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어려워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된다. 부르심 안에서 내 욕심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때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임을 알고 순종하게 된다. 내 일이 아니라는 의미는 내 것이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의미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섬겼더니 은혜로 받은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 김길 목사, 『제자도』 중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주일 성경공부가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한복음의 7가지 기억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3. Oikos 셀 사역: 오늘 저녁 친교와 영적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ell 모임을 가집니다.
4. 11/24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찬예식이 있으며 자녀들이 감사 찬양을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5.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6. 모이기에 힘쓰시다. 새벽 기도회(화-금 6a.m. / 토 7a.m.)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7.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2019년 사역 정리와 2020년 사역 준비를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전진과 변화를 위해 순종과 내려놓음으로 준비합니다.

11/12월 사역 ▶ 11.10 Oikos 셀 사역 / 11.24 추수감사 주일 & 성찬예식 / 12.12 Oikos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 12.31 송구영신예배 & 성찬예식
▶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뷰와 재정비

♥성령의 은사♥ 김지수(11/2) 정연미(11/4) 홍정임(11/4) 박진성(11/5) 정하민(11/23)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 | | | | |
|--------|---------|-------------|-------|-------------|--------|
| 예배 섬김이 | 주일예배기도 | 11/10 | 11/17 | 11/24 | 12/1 |
| | | 구은강집사 | 박진성집사 | 최내권집사 | 고순제전도사 |
| | 금요일예배기도 | 11/15 | 11/22 | 11/29 | 12/6 |
| | | 구 민집사 | 최선윤집사 | 김훈태집사 | 박진성집사 |
| 주일헌금위원 | | 11/10 | 11/17 | 11/24 | 12/1 |
| | |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 |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 |
| | 주일안내위원 | 11월 | | | 12월 |
| | 구 민집사 | | | 김훈태집사 |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 로마서 1:1-7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성경에 기록되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복음은 감격과 기대감과 열정을 다시 일으킨다. 로마를 방문해 성도에게 복음을 나누려던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며 참 소망을 가짐으로써, 믿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내려야 한다.

복음에 빛진 자 / 로마서 1:8-15

왜 바울은 스스로를 빛 진자라 말합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춘 바울은 어떤 사명과 희생도 미다 않고 감당했다. 우리도 빛진 자로서 더욱 잘 섬겨야 한다.

복음에 빛진 자 / 로마서 1:8-15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빛진 자라고 선언하고, 그 빛을 갖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스스로 빛진 자라고 하였는가.

우선,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빛을 지고 있다고 한다.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빛진 자의 심정으로 빛을 갖고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빛'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지은 자는 빛진 자, 의무를 지닌 자, 자기가 입힌 상해에 배상을 하지 않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일만 달란트 빛진 자를 기억하는가. 일만 달란트 빛진 종은 그를 불쌍히 여긴 임금에 의해 빛을 탐감 받았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빛을 탐감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말 할 수 없을 만큼 기쁠 것이다. 더 나아가 평생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빛, 모든 죄를 씻음 받게 한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빛이 없다. 그러나 내 빛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즉, 복음의 빛이다. 이는 구원 얻은 사람답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 고마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빛진 자의 마음이다.

바울 처럼 우리도 복음에 빛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여기고 있는가. 일만 달란트의 빛을 탐감 받고 나서도, 100 데나리온을 돌려받기 위해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처럼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바울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다. 바울이 얻은 구원과 우리가 얻은 구원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없듯이 바울이 느꼈던 부채감을 우리도 똑같이 느껴야 한다. 바울의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도 우리 것이어야 한다.

빛진 자로서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기자. 예수님이 보혈로 사신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겸손히 세워나가자. 우리의 작은 섬김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열정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금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November 10,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신앙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감사의 달

믿음성장/신앙생활 성숙 추구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크리스천은
영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리를 이기는 사랑이다